



주님 공헌 대축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동참하시는 주님

새해 첫 주일인 오늘은 '주님 공현公顯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은 '주님께서 당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방 민족으로 표현된 동방의 박사에게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심으로 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임금이 태어나실 것을 알아차리고 태어나실 위대한 분을 경배하기 위해 별의 인도를 받아 먼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유대인의 임금이 태어날 곳이라 생각하여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별의 인도를 받아 드디어 그분이 태어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조그마한 마을인 베들레헴, 그것도 가축들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온 세상의 임금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경배하며 그들이 가져간 예물을 드린 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위대한 분이 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의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그것도 화려한 궁전 같은 곳이 아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며, 그분이 누인 곳도 화려한 요람이 아닌 가축들의 먹이통인 구유일까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빵의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유는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먹히는 삶을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되어 우리에게 먹히시어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나심은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셨음을 드러냅니다.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음을,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고 계심을 드러내 주는 표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죄와 고통, 죽음이라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동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시어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주님 공현 대축일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이 어려움에 집중되다 보니 자주 두려움에 휩싸여 평화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내 처지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미 우리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깊은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욱 자주 만나 힘을 얻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혁호 미카엘 신부 | 장승포본당 주임



제 1 독 서	이사 60,1-6
화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 2 독 서	에페 3,2,3L,5-6
복 음	마태 2,1-12

주일 진례



초심初心으로!

군 사목을 마칠 무렵인 2001년 10월에 합참 지도방문단의 육군 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동티모르(East Timor) 국제평화유지군國際平和維持軍에 파견된 한국군 상록수부대常綠樹部隊를 방문한 적이 있다. 말로만 들어왔던 독립 정부 수립 지원, 치안 유지와 구호 활동, 태권도와 새마을 운동 전파 등 상록수부대의 높은 활약을 직접 확인하고서 한국군의 일원임에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갖기도 했다.

그곳에서 본 것 중에서 아직도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상록수부대 막사 연병장 앞에 쓰여있었던, 그리고 부대장의 지휘 중점이기도 했던 ‘초심初心으로!’라는 구호이다. 부대원들은 그 앞에서 매일 점호를 취하고 훈련도 했으며, 지나다니며 그 구호를 보면서 상록수 부대에 선발될 때 가졌던 초심初心의 뜻을 복귀하는 날까지 간직하며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상록수 부대원들은 동티모르에 파견된 국제평화유지군 가운데 최고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2021년의 첫 주일인 주님 공현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그때 그 구호가 유난히 가슴에 와닿는다.

지난 2020년은 그야말로 ‘코로나19의 해’였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우리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삶을 살았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모임과 활동이 줄어들며 서로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가까이하려고 했다. 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하며 이웃의 소중함, 자연의 섭리, 하느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새해를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초에 만나는 사람에게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한다. 복은 누가 주는가? 당연히 하느님께서 주신다.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자기식대로 살지 않고, 복을 주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이 허락하신 날수를 헤아리며 삶의 의미를 깨달아,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세월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 뉘우치고 후회하며, 받은 은총과 도움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또 그러한 것을 토대로 새해에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도록 다짐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초심初心이 1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1월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영어는 January이다.

January는 로마신화의 Janus 신神에서 유래되었다. Janus 신神은 본래 앞뒤로 각기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한다. 하나는 지난날을 돌아보는 반성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위한 설계의 얼굴이다. 그러므로 1월 한 달은 계속 반성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달이라는 뜻이다.

2021년 1월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의 초심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도록 하자. 이러한 배려가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29-37)이 되게 하는 삶이며,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마태 22,40)이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마태 7,12 루카 6,31)일 것이다.

이러한 초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일 년 내내 유지되어 복 받도록 하자.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황님의 사회교리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양 냄새나는 목자’로서 끊임없이 ‘시대의 징표’를 읽고자 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12월 세밑 한 해를 정리하며, 전 세계에 보내는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가톨릭 사회 정의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사회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 첫 번째 필수 요소는 현실 인식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신실하게 일하기를 원한다면, 인류 삶의 풍요로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비치는 작은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무시되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어떻게 의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유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이들과 선의의 사람들이 선과 사랑과 다름없이 정의가 매일 획득해야만 하는 공동 작업, 조화로운 작업임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균형은 매 순간 드러나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헌신’은 새로운 사회 정의를 나누고 일치시킵니다. “유혹은 다른 이들을 자주 무관심하게 합니다. 특별히 약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조건 없는 헌신이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으로, 차별의 문화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성찰을 요구하는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은 미래를 내다보는 중심축입니다” “과거를 통해 모든 경험은 그 뿌리가 있음을 알고 성찰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회 정의의 역사적 뿌리를 성찰함으로써 오늘을 새롭게 사유하고, 키우고 강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에 관한 관심입니다. 역사는 사람에게 향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에서 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느님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지배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우월한 성직주의로서, 그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람과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서는 ‘연대성’을 강조하십니다. “가난, 차별의 구조적인 원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노동, 땅, 거주지 결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지분, 노동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사회적 권리와 노동권을 제약하는 이들과 맞서는 노력, 다른 이들을 착취하려는 문화와 다른 이들의 존엄을 내팽개치려는 결말에 맞서는 노력이야말로 역사를 만드는 길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기도를 통한 특별한 날’이 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들: 코로나 대유행 대신 크리스마스에 맞이하는 하느님 선물의 기쁨

예수 성탄의 최고 성지인 베들레헴 역시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피해 가지 못하고 성탄절 행사를 대폭 최소화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역시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의 총대주교좌와 교회의 수장들(예루살렘은 다양한 그리스도교 종파-천주교, 정교회, 개신교-는 물론이고, 유대교, 이슬람교 등 세계 종교의 중요 성지입니다)은 백성에게 보낸 성탄절 메시지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엠마누엘의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수의 성탄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한 이 초월적이고 가장 거룩한 선물은 우리가 혼자이지 않다는 희망이자 우리의 구원입니다.”

침울한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대한 제재 때문에, 올해 성탄제는 참으로 침울한 가운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안톤 살만 시장은 전통적인 성탄 밤 미사는 코로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한적으로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제적 고통

성탄절을 즈음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의 급격한 감소로 이 지역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에 비해 올해는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랍 호텔 협회의 엘리아스 엘 아르야는 30여 년간 호텔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지만, 올해가 가장 최악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가톨릭 주교회의 미디어 위원회 의장 와다이 마부나싸르는 베들레헴은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70퍼센트가량이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실직 문제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전통적인 예루살렘 성지 보존을 위한 기부금은 감소하는 대신 지역민들을 위한 치료 약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엠마누엘-‘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현존은 모든 상황에서 그러합니다.” 교회들의 수장들은 “이 사실은 격려와 자양의 원천이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불평등, 상처받은 이들과 약한 이들에게 대한 폭력의 증가를 겪는 이 예외적인 시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거나 여러모로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과 깊은 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통해 대유행이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희망의 이유

지금 이 환란의 시기라면, 예수의 탄생 시기 역시 고통의 시기였음을 상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 폭력, 소외, 가난의 시대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욕을 취하심으로써 죄 외에는 그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수난,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풍요로움을 획득하였습니다. 고난의 시기의 하느님 선물은 창조적인 희망과 변화와 격려를 선사합니다.”





일 립



교구장 동정

참사회의

일시: 1월 8일(금) 11:00

교구/본당

수품자 피정

일시: 1월 5일(화)~11일(월) 6박 7일

장소: 성혈 영성의 집

전국 홍보국장 회의(화상 회의)

일시: 1월 5일(화)

전국 청소년국장 회의(화상 회의)

일시: 1월 7일(목)

고3 피정

일시: 2월 20일(토) 13:00~2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참가비: 1인 6만 원

(교구사목비 면제 본당 3만 원)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봉헌금), 세면도구(수건,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텀블러, 마스크

신청: 2월 7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월 10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 선교사 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24~40세 신자

하청본당 제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이창우(가톨릭 보로메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명희(젬마)

총무부장: 김명희(베로니카)

재경부장: 강문호(스테파노)

구역분과위원장: 안현자(엘리사벳)

복음화분과위원장: 서윤순(가타리나)

전례분과위원장: 윤정옥(엘리사벳)

시설관리분과위원장: 김창근(다미아노)

시설관리분과부위원장: 이정일(토마스)

문의: 010·3817·0567, www.columban.or.kr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서기담당 010·5911·8792

기 타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1월 7일(목) 09:00~11일(월) 18:00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선발인원은 홈페이지(ipsi.cup.ac.kr) 참조

전형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문의: 입학관리부 김종진(모세) 051·510·0702

경화동본당 제2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춘덕(스콜라스티카)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박점수(요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송준순(바울라)

총무부장: 김민수(가브리엘)

재경분과위원장: 이인걸(바오로)

전례분과위원장: 장신성(요한)

시설분과위원장: 노용찬(미카엘)

구역분과위원장: 정미정(바실라)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순병(루피노)

전입·냉담교우관리분과위원장: 임순덕(요한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정애(스텔라)

가정사목분과위원장: 박인숙(비아)

청소년분과위원장: 최규훈(토마스 아퀴나스)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p> <p>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p>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p> <p>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p>  <p>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p>
<p>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p> <p>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p> <p>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www.spcfood.co.kr</p>	<p>수맥홍(홍)침대</p> <p>주부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p> <p>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p>		



일 립

2021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1월 12일(화) 14:0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주례: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사제품 대상자



박진웅 프란치스코
첫미사 하대동성당
2021년 1월 14일(목) 19:30



심정현 요한드라살
첫미사 함안성당
2021년 1월 13일(수) 19:30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품식은 최소 인원으로
거행됩니다.

교우들은 마산교구 유튜브 채널(웹 주소: bit.ly/성당)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부제품 대상자



계강준 요한
칠원본당



김현 안드레아
반송본당



임태근 모세
호계본당



정병진 요셉
함안본당



신승혁 요한
장평본당



남하늘 엘리시오
대방동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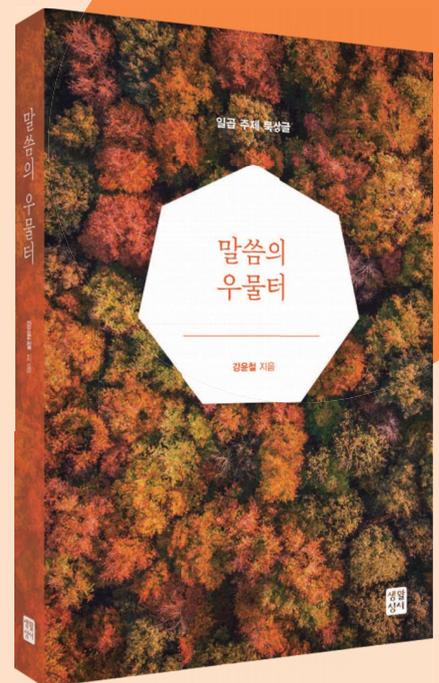
신간소개

말씀의 우물터

은퇴를 앞둔 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과 성찰

이 책의 저자인 강윤철 신부가 처음 사제가 되면서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은 '과연 내가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교우들의 신앙과 삶에 도움을 주는 강론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그들에게 건네는 강론의 삶을 과연 자신은 살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쌓아 두었던 자신의 마음을 은퇴를 앞둔 지금 다시 꺼내어 묵상이라는 바람에 말려, 정돈한 글들을 세상에 꺼내어 놓는다. 40년 전 첫 본당에서의 강론 원고, 강론이 쓰이지 않아 애를 먹고 '허적거렸던' 날들, 전례주년에 따라 다르게 준비했던 강론들, 어림잡아도 2천여 편이 넘게 작성한 강론 원고들 ...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죄스럽기까지 했던 자신의 글들이 교우를 위한 강론이 아닌, '나를 향한 다짐이자 외침'으로 깨닫는 순간, 그제야 이 글들을 교우들과 나눌 수 있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 지은이: 강윤철 신부
- 출간일: 2021년 1월 1일
- 출판사: 생활성서사



두 세상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중에 나온 말이나 질문이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상처가 되는 부분을 건드렸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더군다나 대화를 나눈 그 사람이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자연스러운 느낌을 나눈 것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때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왕통을 이어받기 위해 하스모네 왕조의 합법적인 통치자의 손녀와 결혼한 이두매아 출신 헤로데 임금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태생적인 출신 신분 차이로 인한 뿌리 깊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헤로데 임금에게 이 질문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짐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의 왕권, 존재가 위협당할까 하는 불안, 두려움, 공포의 감정을 내색하지 않으면서 태연한 척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겠다 싶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내지 공격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심리적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까요? 헤로데 임금에게서 그 메커니즘이 돌아갈 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박사들을 몰래 불러내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알아내는 은밀한 행동을 하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라는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은밀하게 세운 계획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해 격분,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헤로데 임금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크든 작든 저 자신은 물론 모든 인간 존재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자신들이 찾고 있는 목표가 사면초가에 부딪혔을 때 그 결과가 어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감히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와주는 이의 말을 순순히 믿으며 자신들의 여정을 계속하여 마침내 그들의 원의를 채웠고, 꿈속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간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라앉지 않고 반복되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상황이 일상의 모든 활동과 인간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이때, 바로 오늘 우리는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이 복되신 아기가 온 우주의 창조주, 생명의 주재자, 세상의 죄를 없애려 오신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 각자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자신 안의 헤로데와 동방박사의 움직임, 함께 살아가는 이들 안에서 드러나는 헤로데와 동방박사의 모습 그리고 헤로데와 동방박사가 혼재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 탄생 이천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 새 창조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